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이 일어납니다



중소기업청
브리핑

제33호 2004년 9월 10일 (금) 공보담당관실 TEL.042-481-4330~32 / FAX.042-472-3264

제5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개막 -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 확산 -



대통령 내외분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혁신대전 개막식이 거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의욕을 고취하고, 혁신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제5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이 7일부터 10일까지 COEX 대서양홀에서 열린다.

올해 5번째인 이번 행사는 총 400개사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분야 최대규모의 행사로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이 추진해 온 기술혁신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전파하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다.

행사는 우수혁신기술박람회, 기술혁신상 및 유공자 시상, 해외기술설명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혁신기술박람회에는 기술혁신관, 산학연관, 기업종교류관, 대·중소기업협력관, 해외기술관 등 총 7개관에서 우수 기술이 전시된다.

한편 7일 개막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지금 중소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놓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점검하고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혁신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기술로 승부하겠다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기술개발에 앞장서는 중소기업 제품은 정부가 먼저 구매하고 적극 활용할 것이며, 나아가 제대로 된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기술력 있는 기업이 곧 신용 있는 기업’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정착시켜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유용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2천 6백 여개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2008년까지 1만 개 수준으로 확대해서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여러분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며 기술혁신의 주체, 고용창출의 원천”이라고 전제하고 “자신과 긍지를 갖고 도전하고, 중소기업 전체에 기술혁신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도록 하자”라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 영예의 ‘기술혁신상’ 大償에는 통신과 인터넷의 융합을 통해 통신망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용량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하는 데 성공한 (주)헤리트(대표 한미숙)가 수상했으며, 금상에는 (주)메트로닉스(대표 김병균), (주)뉴로스(대표 김승우), 케이엠에스제약(주)(대표 유병만)가, 은상

에는 (주)지스텍 등 5개사가, 동상에는 에이제이피코리아(주) 등 11개사가 각각 수상했다.

유공자 부문에는 세계 최초로 6세대 LCD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신기술 창업의 선도적 모델을 제시한 공로로 박희재 (주)에스엔유프리시전 대표가 산업훈장을 받는 등 총 30명이 훈·포장 등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행사로 기술협력 및 해외시장 개척의 기반을 마련하고, 우수인력의 창업기회 제공 및 산·학·연 교류증진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지원국
기술정책과
(042-481-4432)

소기업 ·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충 추진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입법예고 -

중소기업청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과 보증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비율을 출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보증공급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보조금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어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신보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충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구상채권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구상채권회수율 제고를 통한 보증 및 재보증수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보유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올해안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이달말까지 중기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기업성장지원국
금융지원과
(042-481-4385)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에 의한 정보화 성과 커

- 7% 원가절감, 20% 납기단축 -

중소기업청이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를 통해 정보화 구축을 완료한 4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구축성과를 조사한 결과 구축전에 비해 원가가 평균 7%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기는 평균 20.8% 단축된 것으로, 품질도 평균 22.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시간에 있어서도 38% 정도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고, 의사결정 정밀도 또한 90.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정보화 도입으로 기업경영혁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에게 업무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회계·생산·

물류 등의 실시간적 현황 파악, 업무관심도 등에서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중소기업들은 정보화 구축비용으로 평균 2억여원을 투자했으며, 정부로부터는 평균 4,825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기계 업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전자, 화학업종 순이었고, 자본금 규모별로는 1~9억원의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0~49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사업은 정보화 투자성과에 확신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원능력을 갖춘 전문기업(TIMPs)이 정보화계획에서 시스템구축 및 사후관

리까지 일괄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정보화를 활용하는 시점에서 전문기업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2년 4개 업종에 6개 업체를 시범 지원했으며, 2003년에는 7개 업종으로 확대하여 80개 업체를 지원했고, 올해에도 8개 업종을 대상으로 105개 업체를 지원중에 있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지원대상 업종 및 업체 수 확대, 지원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이 사업을 정보화선도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 기술지원국
기업정보화과
(042-481-4400)

중소기업상담회사 35개사 퇴출

- 158개 상담회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 -

중소기업청은 지난 6~8월까지 전국 158개 중소기업상담회사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 및 자진반납한 35개 상담회사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키로 했다.

조사결과 전체 158개 상담회사중 77.8%인 123개사가 정상운영중에 있으나 18개사는 수익성 악화 등의 사유로 자진 반납했고, 17개사는 폐업 및 이전 등 연락이 두절돼 이달중 청문절차를 거쳐 퇴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 상담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지난 2002년 125백만원에서 지난해 159백만원으로 21.4% 증가했으나, 창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절차대행용역은 2002년 40건에서 2003년 3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회사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66개사, 경기 12개사, 인천 4개사로 전체의 51.9%인 84개사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광주 15개사, 경남 13개사, 부산 12개사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중기청에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담회사의 자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2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상담회사를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회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부실 상담회사 양산 방지를 위해 창업지원법 개정 및 관련 고시등을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화에 기하고, 창업활성화를 위한 상담회사 용역 지원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창업을 추진중이거나 창업초기 기업은 중소기업상담회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 검토, 경영·기술지도, 창업절차대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용역대금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150만원에서 350만원 한도내에서 5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042-481-4430)

싱글PPM 품질인증 중소기업 1천개 돌파

제품의 품질불량률이 싱글PPM 수준에 도달한 1천번째 싱글PPM 품질인증 중소기업이 배출됐다.

싱글PPM 품질인증은 품질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제품 100만개 중 불량품 개수를 한자리 숫자(10개 미만)로 줄인 중소기업에 수여하는 것으로서 현대자동차(주)의 협력업체인 삼립산업(주)(대표자 이충곤, 경북 경산 소재)가 생산제품인 Parking Brake Lever의 불량률이 0 PPM 수준에 도달하여 1천번째로 인증을 받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995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생산제품 100만개중 불량품을 한자리 숫자로 줄이고, 장기적으로 불량률 제로(0)의 품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싱글PPM품질혁신 운동'을 추진해 왔다.

이 운동에는 그동안 120여개 모기업과 1만여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품질혁신기법 지도 및 교육 등을 통해 공정불량률을 2분의 1, 완성품불량률을 3분의 1로 감소시키는 등 품질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중기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품질경쟁력을 높여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싱글PPM 품질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기술지원국
기업정보화과
(042-481-4458)

제3차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캠페인 개최

중소기업청은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오는 9일 광주 KT전남본부 3층에서 '3차 중소기업 정보화 촉진 캠페인'을 개최한다.

인천 및 수원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정보화를 통해 경영혁신에 성공한 사례와 기업정보화와 관련된 전문 강좌 및 최신 동향을 소개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 정보화 추진의지를 고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POP(생산시점관리)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통해 경영혁신을 달성한 (주)호원과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에 성공한 풍기산업(주)가 정보화 추진과정과 성과를 직접 발표한다.

또한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의 성공사례 발표와 '유비쿼터스와 중소기업경영', '중소기업 정보화와 재무공시의 방향'에 대한 전문강좌도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http://kj.smba.go.kr>) 및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http://www.kimi.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기술지원국
정보화지원과
(042-481-4400)